

# SRDP 특허 등 전력설비 차별화... 'AI데이터센터' 사업 만전

(안전교체분전반)

## 혁신기업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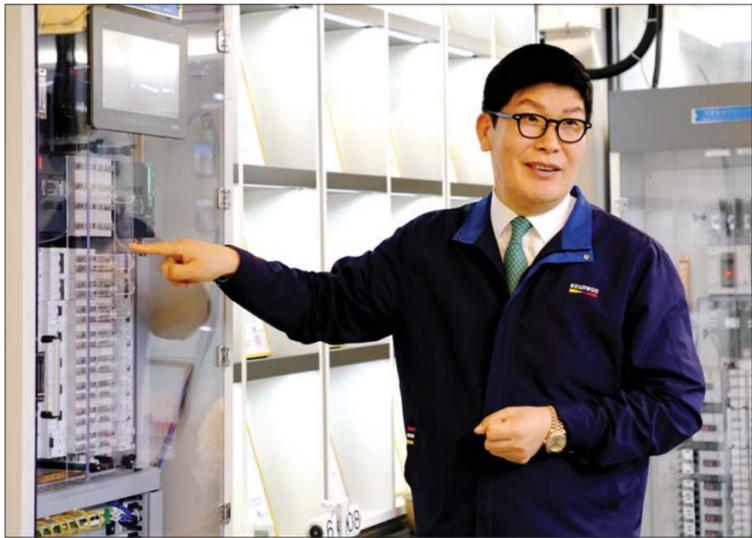
### 근우 김재진 대표

AI센터 전력설비 레퍼런스 확보  
충북에 수배전반 제조공장 준공  
"2030년 매출 목표는 5000억"

지난해 10월, 130명에 가까운(근우) 임직원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8박 10일 동안 여행했다. 회사는 여행 경비로 적지 않은 10억원 가량을 썼다. 돈은 많이 들었지만 함께 여행하면서 남는 것이 더 많았다.

"회사 매출이 500억원을 넘었을 때 모든 직원들과 일본 여행을 같이 갔었다. 당시에 1000억원이 넘으면 유럽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다. 이젠 약속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웃음)"

김재진 대표가 92년 당시 '근우실업'으로 설립한 근우는 2018년에 매출 525억원을 기록했다. 그후 4년만인 2022년



김재진 근우 대표가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에는 김 대표가 유럽 여행을 약속했던 '매출 1000억원'이 넘었다. 올해 목표는 2600억원이다.

"2030년 매출 목표는 5000억원이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까지 같 것이다."

코스닥시장에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마무리하고 김 대표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온 임직원들에게 또다시 꺼낼 약속이 궁금해진다.

김 대표는 "유능한 인재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복지 등에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질 않는다. 동종업계에선 아마도 우리만한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

했다.

실제로 근우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5·10·15·20년 장기근속 포상제도가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학자금을 모두 지원한다. 2023년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받았다.

근우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까지 많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수배전반, 안전교체분전반(SRDP), 모터제어반 등 제조 뿐만 아니라 창립 당시 아이템이었던 부스덕트를 비롯해 무정전원장치(UPS), 변압기 등 장비 생산, 소방·전기·통신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최근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회사 전체 매출의 40~50%에 달할 정도로 핵심 사업군으로 급부상했다.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설비 구축사업은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회

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장비와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대세인 100메가와트(MW) 규모의 AI데이터센터 구축 수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미국, 유럽 등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1000MW(1GW)급 센터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의 AI데이터센터 전력 설비 구축 레퍼런스를 토대로 현재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근우는 지난 4월엔 충북 음성에 수배전반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음성공장은 근우의 글로벌 전진기지다.

그는 "지난해에 프랑스 다국적 기업인 슈나이더일렉트릭과 '블록셋 판넬' 제조 및 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음성공장에 블록셋 판넬 전용 생산설비를 구축했다. 음성공장은 판금, 도장까지 일련이 공정이 가능한 스마트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기보, 84개 기업 'BIRD 프로그램' 선정

경쟁률 4:1 기록... 1단계 지원 마무리  
"충족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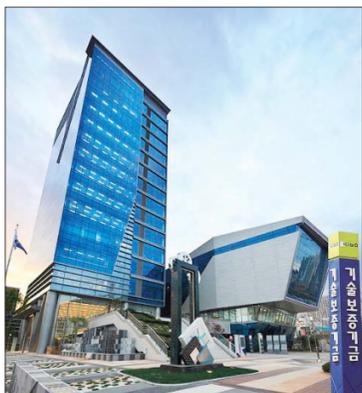
기술보증기금이 연구개발(R&D) 전 과정을 지원하는 'BIRD 프로그램' 관련 84개 기업을 선정하고 1단계 지원을 마무리했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BIRD 프로그램은 기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협업해 중소벤처기업의 R&D 전 과정을 단계별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도입 이후 개발과 사업화 단계가 단절돼 성과 창출이 지연되던 기존 R&D 지원 구조를 해소하고 사업화 성과를 앞당기는 데 기여해왔다.

올해 대상기업은 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전문심의회, 3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총 332개 기업이 신청해 약 4대 1의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전략기술 분야에 고루 분포해 있다. 우주항공, 해양로봇, 탄소중립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정 사례가 많지 않았던 분야의 개발 추진기업까지 포함했다.

2단계(R&D) 출연금 지원 대상기업은 1단계(Pre-R&D) 선정기업 중 기정

원의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확정한다. 3단계(Post-R&D) 지원은 2단계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제도 도입 3년 차인 올해까지 총 218개 기업에 436억원의 기획자금을 보증하고, 160개 기업에 약 1441억 원 규모의 수행자금을 출연한다. 보증연계 투자 20억원 등을 포함해 누적 19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했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BIRD 프로그램은 용자와 출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가 단절 없이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된 전주기 통합 지원 모델"이라며 "기보는 R&D 사업화 금융 전담 기관으로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충실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상의 "수출기업, 그린워싱 리스크 대비해야"

'제6회 ESG 강연&토크' 개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하면서 수출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제6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연&토크'를 개최하고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일반법과 같은 그린클레임 지침이 통과되고 EU 이사회에서 적용시기 등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이슈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린워싱은 기업이 대응해야 할 ESG 리스크가 되고 있다.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110건에서 지난해 252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자료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이나 경영 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U는 자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수출기업도 그린워싱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클레임 지침은 지난해 EU 의회를 통과해 현재 적용시기를 논의 중이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현대케피코, EV충전기 라인업 완성... 전동화 시장 본격 진출

완속 1종, 급속 4종, 초급속 2종 개발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 전문 기업 현대케피코가 EV충전기 전 라인업을 구축해 전동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차량용 고성능 통합제어기, 차량충전관리제어기, 전력변환제어기, 배터리모니터링제어기 등 다양한 전동화 제어기를 개발 및 양산하고 있다. 2021년 말부터 EV 충전기 개발을 시작해 2025년 3월에 완속(1종)을 포함한 다양한 속도의 급속(4종), 초급속(2종) E

V충전기 전 라인업을 개발 완료 했다.

현대케피코는 업계 최초로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세스를 EV충전기 개발에 적용해 주요 개발 단계마다 품질(Q), 비용(C), 일정(D)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EV충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자체 설계 검증(DV), 시뮬레이션 시스템(HILS) 기반 제어 시스템 검증, 차량 호환성 검증 체계를 도입해 국가 인증 요건을 넘어 실사용 환경을 반영한 21개 시험법을 추가 개발·검증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보했다.

또 차량의 충전 관리 제어기(EVCC)와 충전기의 PLC통신제어기(SECC)를 자체 개발해 충전기 고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과 충전기 간의 통신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고 충전기의 충전 통신 호환성을 향상시켰다.

현대케피코 관계자는 "당사의 EV충전기 사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전동화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확대 전략에 발맞춰 고품질 충전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샤오미,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 연다

이달 중 '미 스토어' 개장 예정

샤오미 한국 법인 샤오미코리아가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을 서울에 연다. 기존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해온 샤오미가 국내 소비자와의 오프라인 접점을 본격 확대하며 브랜드 체험 강화에 나선 것이다.

샤오미코리아는 서울 여의도 IFC몰 2층에 국내 최초 오프라인 매장 '미 스토어'를 이달 중 개장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미 스토어는 스마트폰, TV, 청소기,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샤오미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된다. 단순 판매를 넘어 사후서비스(AS)까지 제공하는 복합 매장으로 운영돼 국내 시장 공략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샤오미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브랜드 체험 기회를 넓히고, 소비자와의 일상적 접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혜민 기자 hyem@